

해남미소·로컬푸드 ‘월급받는 농업인’ 시대 연다

‘농어촌 수도 해남’ 비전 제시·지속가능 미래 농업 실현 생산-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농업인 안정적 판로 제공

해남군이 2025년 ‘농어촌 수도, 해남’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남미소와 로컬푸드 사업을 중심으로 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해 안전 먹거리 생산·가공, 온·오프라인 유통 체계를 개선해 농어민 소득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는 지난해 매출 241억원을 기록하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쇼핑몰 중 최고 성과를 거뒀다.

해남군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 전국 1위, GAP(우수농산물) 최대 생산 지역으로, 청정 먹거리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도 농식품 유통평가와 농정업무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4년 연속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2년 연속 지역먹거리지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군은 올해 제2차 지역먹거리 계획을 실행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학교급식 물류센터 건립, 농가 조직 고도화, 광역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로컬푸드 군수 인증제 활성화,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시스템 등을 추진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판매하는 동시에 잘사는 농어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기자

가한 수치로, 입점 업체도 2011년 81개에서 2024년 577개로 늘어났다.

현재 1천19개 상품과 2천707개 옵션을 판매하며, 회원 수도 2011년 6만2천446명에서 2만명 이상 늘어난 8만1천668명으로 증가했다.

해남미소는 카카오톡 B2B 판매 사업을 시작해 21만3천788명의 카카오톡 친구를 확보하는 등 유통 채널을 확장하며 농가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인근 대도시가 없는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 이후 36만명이 방문했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매출 97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589농가, 79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는 59개소 어린이집·학교 및 공공급식업체 7개소에 해남산 농산물을 공급하며 지난해 누적 매출 70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해남미소와 로컬푸드 직매장은 중소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며 농가 소득을 높이고 ‘월급받는 농업인’으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창출하고 있다.

해남군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



해남군 관계자들이 해남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3주년을 맞아 입점 농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영암군, 2025영암왕인문화축제 준비 ‘착착’

3월29일-4월6일 구림마을 일대...‘위대한 항해’ 주제

영암군이 오는 3월29일-4월6일 구림면 왕인박사유적지와 구림마을 일대에서 개최하는 ‘2025영암왕인문화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역 간관 축제에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한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올해 주제는

‘위대한 항해(The Greatest Voyage)’다. 영암군은 왕인박사의 고대 국제 문화 전파 유산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존과 공영의 세계적 가치를 조명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꾸민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 축제’, ‘생활인구 축제’, ‘경제 축제’를 목표로 축제의 성공을 지원할 ‘왕인문화축제기획단’을 구성한다.

이 기획단은 영암군 실·과·소와 협업을 통한 안전 대책, 생활인구 증대 방안, 사회단체 참여 확대, 교통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1997년 시작된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역사성과 독창성을 겸비한 축제로, 매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역 전통문

화를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영암군은 올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식 관광과장은 “영암의 봄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 2025 영암왕인문화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하겠다”며 “더불어 안전한 축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범 축제로 거듭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 1주년 기념 ‘이벤트 풍성’

짜공과 1+1 이용·학생 할인 등

완도해양치유센터는 22일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말 국내 최초로 개관한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는 2월까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에 ‘1’이 들어가면 평일 모든 프로그램을 50% 할인해주며, 짜공과 함께 1+1, 학생은 평일에 기본 프로그램을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 또는 홈페이지에 해양치유센터 이용 후기를 작성하면 테라피 제품을 증정한다.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을 유치, 해양치유센터를 포함해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유료 관광지·체험, 특산물 판매장 등을 이용하는 여행사에게는 여행 지원금을 제공한다. 앞으로 웰니스 관광 체험 주간, 기정의 달 등 각 시즌에 맞춰 특

별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치유센터는 개관 이후 5만8천여 명이 다녀갔으며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에는 예약이 꽉 찼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설 연휴 기간 중에는 29일에는 휴관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완도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10개의 해양치유 테라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바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힐링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완도=윤보현기자



관광객들이 완도해양치유센터의 명상풀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온몸에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목포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반려 촉구”

●목포시의회 17명 일동 성명서 발표

유해물질·운반과정 2차 세균감염 위험성 우려 규제대상 제외...주민 의견수렴·협의 생략 지적

“목포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신청을 즉시 반려를 촉구한다.”

목포시의회 17명의 의원들이 22일 목포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장) 사업 신청 반려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1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목포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신청이 접수됐다”면서 “생활폐기물보다 훨씬 많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의료폐기

물은 법에서 엄격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될 정도로 국민 건강에 있어 그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의료폐기물은 해당 기관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함이 원칙이나 실상은 95% 이상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 위험성이 높은 폐기물, 인체적출물, 주사기 등이 목포로 몰려들어 소

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과 1급 발암물질들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대적으로 의료폐기물 발생이 적은 목포에서 전국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며, 장거리 운반과정을 통해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과 사고로 인한 대형 재난사고 발생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소각장 예정 소재지 인근 삼향동과 백련지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조차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이는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t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필수적인 대상이

지만, 목포시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1일 4t 규모로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상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이 생략된 것”이라며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허가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오롯이 목포시민들과 인근 시·군의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원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신청 즉시 반려 ▲의료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방식 철폐 ▲정부 직영 처리시설 운영 등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를 발표한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고경욱·김관호·문차복·박수경·박용식·박용준·박창수·박효상·유창훈·이동수·이형환·정재훈·조성오·최원석·최유란·최지선·최환성 등 17명이다.

/목포=정해선기자

강진군, 6세까지 月 60만원 육아수당 지급

7-18세까지 월 20만원 지원도

강진군은 22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6세까지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고 7세부터 18세까지는 매월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1일 이후 전남도 내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동의 대상으로 하며, 출생아와 보호자 모두 출생신고일로부터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주요 내용은 ▲만 0세 강진군 육아수당 기존 60만원 지급 ▲만 1-6세 도 출

생수당 10만원(현금) 및 강진군 육아수당 50만원 지급 ▲만 7-18세 도 출생수당 10만원(현금) 및 강진군 출생수당 10만원(도비일자리역사공공금)을 지급한다.

김은숙 군민행복과장은 “육아수당과 함께 출생기본수당을 더해 월 70만원 지급을 위해 노력했으나, 월 60만원의 상한으로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 양육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영광군, 설 연휴 응급의료 가동 ‘총력’

24시 응급실 2곳·병·의원 66곳·약국 26곳 운영

영광군은 22일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에 방문한 가족들과 군민들이 의료공백을 겪지 않도록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인 영광종합병원과 영광기독병원은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둔했다.

병·의원 66개소, 약국 26개소도 비상진료체계에 참여해 경증환자의 병·의원 이용 및 의약품 구입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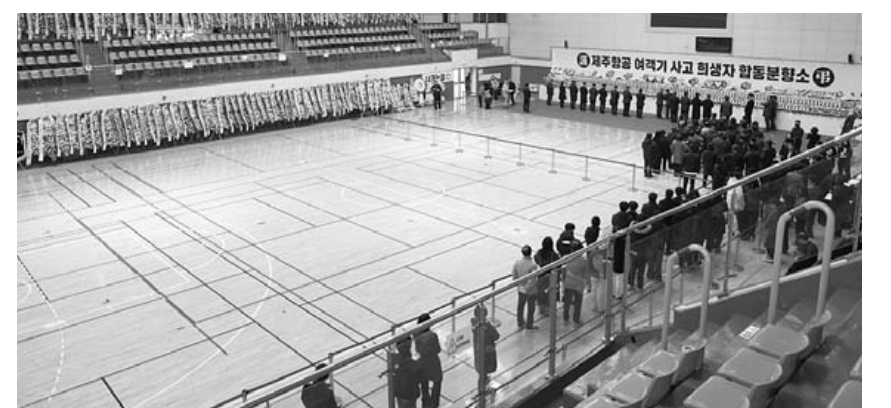
또한 연휴기간 내 보건소에 ‘응급진

료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응급의료기관 2개소, 보건기관, 병·의원, 약국 등 총 96개소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차질 없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설 연휴에는 응급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동내의원을 이용하길 당부했다.

연휴기간 동안 운영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는 영광군 누리집, 보건소(061-350-5552), 119급상향관리센터(11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동규기자



무안 합동분향소 운영 종료...1만4천여명 발길

21일간 추모 물결

무안군은 22일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무안종합스포츠파크 합동분향소(사진) 운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마련된 무안스포츠파크 합동분향소에는 21일간 애도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1만4천883명이 방문했

고,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근조 화환 302개는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무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분향소에도 1천428명이 헌화하는 등 많은 사랑이 애도에 동참했다.

오선희무안군 주민생활과장은 “사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온라인 분향소는 계속 운영하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